



우리시대 참스승

이동초등학교 교장 김기주

“국가의 원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바른 심성과 튼튼한 몸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어린이 육성

“학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오늘날의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가 학교장에게 매우 심한 갈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는 나라의 장래를 예견하고 미래 이 나라의 주인공을 길러 내는 곳이니만큼, 학교장은 가시적인 현상보다는 좀더 거시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동초등학교 김기주(58·사진) 교장은 2003년3월1일부터 올해로 만 4년 동안 초빙 교장으로 이동초등학교를 경영해왔다.

김 교장은 온유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능률적인 교육행정 전문가로서의 업무처리를 통해 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여러 상훈되는 상황과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켰다.

여러 부딪치는 상황에 맞게 정확한 판단력과 순발력을 가지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 합의절차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찾아오고 싶은 학교로 교직원에게는 즐거운 학교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학교 운영은 물론 투명성을 제고하여 열린 학교 경영체제를 전개해 지역사회의 중심문화로 차지하고 있다.

김 교장은 특히 어느 한 방면에 치우쳐 교육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여 올바른 교육관과 사명감을 갖고 어려운 교육현실에 교육의 바로 세우는데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학교교육목표달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관리와 지원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밝은 내일을 열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천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에서 교사 근무하다가 1991년 경기도로 전입했으며 1994년 9월 보정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근무할 때 병원적치물폐기처리장 설치반대운동으로 학생들의 등교거부 등 지역사회가 매우 혼란에 빠졌을 때 성실히 공무담임



권을 행사하면서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초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해 심크로나이즈 종목을 육성하는데 노력했으며 1999년 9월1일 전임교장의 정년퇴임으로 교장으로 승진했으며 3년6개월 동안 이동초등학교를 경영했다.

2003년3월1일 초빙교장으로 이동초등학교에 부임해 2년 근무연한이 되면 떠나는 교사가 3~4년씩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김 교장은 학교는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가정처럼 좋은 배움터가 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자기의 꿈을 키우고 기쁨을 바르게 실천하는 자랑스런 학생이 되어야 하며,

교직원들 공자를 가지고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와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주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 개인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학교로 발전하기 위해 ‘바른 심성과 튼튼한 몸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어린이’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김 교장은 기본이 바른 선 학생 생활지도, 인증제를 통한 학업 성취력 향상,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아동의 자량 키우기, 재배 노력 교육, 독서의 생활화 등을 학교 경영 역점 사업 및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증제는 수학인증제, 영어 인증제, 체력 인증제 등 전인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어 인증제의 경우 매주 금요일 ‘step & jump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교장과 교감이 직접 확인을 통한 관심 및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은 락밴드, 컴퓨터, 토피어리, 한자부, 미술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특성화 반 운영을 통한 영어 교육 활성화, 학예발표회를 개최하여 전교생에게 다양한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 교장은 아동의 자량 키우기로 나의 자량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고, 자신의 장점을 파악,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며 가족의 고마움을 느끼고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기쁨을 바르게”를 교육철학으로 삼아 생활의 기본을 교육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김 교장은 학교청소 또한 월,화,목,금요일만 전교생이 실시하고 수요일에는 봉사활동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며 토요일에는 반장, 부반장, 분단장 등 학급 간부들이 봉사하는 날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5회 포천사랑 백일장대회 시상식

일반부 장원 대진대 이창규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재욱)가 9월27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회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10월18일 오후2시 포천여성회관에서 개최됐다.

포천을 사랑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문학에 대한 문화적 소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지역 향토문화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 초등 운문 67편, 산문 41편과 중등 운문 8편, 산문 18편, 대학일반 운문 4편, 산문 5편 등 모두 143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엄격한 심사 결과를 거친 선발된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포천시지사상 ▷일반대학부문 장원 대진대 2년 이창규 ▷초등부 운문 장원 신복초 1년 이다희 ▷초등부 산문 장원 노곡초 6년 김다혜 ▷중등부 산문 장원 갈월중 2년 김수정 ▷포천시의회위원장상 ▷일반대학부 운문 차상 임정례 ▷일반대학부 산문 차상 서선례

▲포천교육장상 ▷초등부 운문 차상-가산초 6년 김나운 ▷초등부 운문 차상-청성초 6년 양예슬 ▷초등부 운문 차상-영중초 3년 유



영서 ▷초등부 운문 차하-신복초 1년 이시원 ▷초등부 운문 차하-왕방초 6년 장유진 ▷초등부 운문 차하-청성초 5년 박광천 ▷초등부 운문 차하-노곡초 3년 남혜원 ▷초등부 산문 차상-왕방초 6년 이연경 ▷초등부 산문 차하-왕방초 6년 이선영 ▷초등부 산문 차하-포천초 6년 박도희

▲포천예총회장상 ▷중등부 산문 차상-송우중 1년 정성호 ▷중등부 운문 차상-송우중 1년 김미정 ▷중등부 산문 차하-경복중 2년 김진은 ▷중등부 운문 차하-갈월중 1년 이해정

산문 입선-동남중 1년 오두승 ▷중등부 산문 입선-송우중 1년 한솔 ▷중등부 산문 입선-송우중 1년 남은정 ▷중등부 산문 입선-송우중 1년 조유미 ▷중등부 산문 입선 갈월중 1년 이경수 ▷초등부 운문 입선 태봉초 3년 유주은 · 왕방초 6년 박현식 · 노곡초 1년 김태훈 · 가산초 6년 서예빈 · 신복초 1년 강소희 · 가산초 4년 이수정 ▷초등부 산문 입선-외북초 6년 김이슬 · 외북초 6년 강선영 · 영중초 3년 최은승 · 선단초 6년 서연주 · 포천초 6년 조다빈 · 왕방초 4년 여혜지

▲포천문인협회장상 ▷중등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함께 공부해요

소학 (海東續小學) ②

擊蒙要訣曰 人子之受生에 性命血肉이 皆 親所遺라 喘息呼吸에 氣脈相通하니 此身이 非我 私物이요 乃父母之遺氣也니 豈敢 自有其身하여 以不盡孝於父母乎아

경몽요결을 인자기 수생에 생명혈육이 개천소유라 천식호흡에 기맥 상통하니 자신이 비아사물이요 내부모지유기아니 기감자유기신하여 이불진효어부모호라

격몽요결(擊蒙要訣)에 말하였다. “자식이 생명을 받음에 목숨과 육체는 모두 어버이가 주신 것이다. 숨을 쉬어 호흡함에 기맥(奇脈)이 서로 통하니, 이 몸은 나의 사유물이 아니라 바로 부모께서 남겨주시는 기운이니, 어찌 감히 그 몸을 자기 것이라 하여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겠는가?”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여 언젠가는 근사하



양주승 본지 시전문필자

하다. 부모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기 전에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하며 귀한 분인지 인정해 드려야한다. 성서 잠언23:25절에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되어 있다. 효도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며 자기 몸 관리 하나만 잘하여도 효도하는 것이다.”



윤종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미국어 따라하기가 수량의 발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엄청난 착오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2007년부터 새롭게 연재될 비즈니스 미국어 시작에 앞서 급근 말까지의 수량에 대한 미국식 발음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국제비즈니스는 유창한 대화로 시작되고 결정되며, 이에 따른 교역절차도 자연스럽게 이해 되므로 독자들의 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1. 이것을 어떻게 읽나요? How do you read this? 하우두유 루디스? \*10분: Ten minutes. 텐미닛스 \*\$10: Ten Dollars. 텐 달러스 \*100년: One hundred years. 원한드레드 이어스

2. 그림, 이것들은요? Then, how about this? 덴, 하러바우디스? \* 1,000장: Onr thousand sheets. 원파우센쉬잇스 \*수 십만명: Hundreds of thousands(of people). 한드레프스 파우센(피어플)

3. 이것들은 어떻게 발음 하나요? How do you pronounce these? 하우두유프로나운스디이스? \* 제 16차: The sixteenth.더식스틴스 \* 제 60주년 기념: The sixtieth anniversary. 더식스티스 애니버서리

4. 맞보기: \* 10대들: Teenagers. 틴에이지스 \* 10배: Ten times. 텐타임스 \* 13: Thirteen. 필틴인 \* 33: Thirty three. 퍼리프루이 \* 38선: The 38th parallel. 더퍼리어잇스 패러럴 \* 31: Thirty one. 퍼리윈

5. 높은 수: \* 1만(10,000): Ten thousand. 텐파우센 \* 10만(100,000): One hundred thousand. 원한드레드 파우센

\* 1만불: One hundred thousand Dollars. 원한드레드 파우센달러스 \* 100만(1,000,000): One million. 원밀리언 \* 천 만원(10,000,000): Ten million Won. 텐밀리언원 \* 4,700 만명: Fourty seven millions(people). 웨리세븐 밀리언스(피플) \* (서기)2006 년: Year Two thousand two. 이어 투파우센투 \* (서기)1948 년: Year Nineteen forty eight. 이어 나인틴후어에잇

6. 가장 발음이 까다로운 수: \* 13: Thirteen. 필틴인 \* 30: Thirty. 터리 \* 33: Thirty three. 퍼리프루이 \* 50: Fifty. 필티 \* 99: Ninety nine. 나이리나인 \* 90: Ninety. 나이리

7. 시간: \* 오전 7시 30분 1) It is seven thirty A.M. 잇세븐터리 에이엠 2) It is seven thirty in the morning. 잇세븐터리 인더모닝 3) It is seven thirty. 잇세븐터리

\* 오전 9시 50분 1) It is nine fifty A.M. 이쓰나인후티 에이엠 2) It is ten to ten. A.M. 이쓰텐투텐 에이엠(10분전 10시) 3) It is ten minutes to ten. 이쓰텐미닛스 투텐 (10분전 10시)

\* 오전 6시45분: 1) It is six forty five. 이식스 웨리하이브 2) It is quater to seven 이스퀘러 투세븐(15분전 7시)

8. 일자: \* 6월 25일, 일요일: Sunday, June 25 쉐데이, 쉐우너니웁스 \* 10월 1일, 오전 10시(10:00)에:

1) At 10:00 a.m. 01 October. 1) 옛텐에이엠, 웨스툼옥터버 2)At 10:00, 01 October. 2) 옛텐에, 옥터버더웁스 \* 3월3일, 목요일, 오후 3시(15:00): 1) At 3 P.M. Thursday, 03 March. 1) 옛트위퍼엠, 펠스데이, 퍼머머취 2) At 15:00, Thursday, 03 March. 2) 옛퀵틴한드레드 펠스데이, 마취터덜

9. 도량형: #영국에서 전래되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가지지를 소개한다. 1) 길이: foot(′), inch(″), 후웃 인취 \* 1m(원미터)=3.28 ft(′)/후웃 \* 1′(foot)원후웃=30.48cm(센치미터), 10 feet(텐 휘잇) \* 1″(인취)=2.54cm(센치미터)

2) 넓이: square(평방)로 사용. \* 1 평방미터: 10.764 square feet(스퀘어휘잇) \* 1 평방인취: 1 square inch.(원스퀘어인취) 3) 부피: cubic(입방)로 사용. \* 1 cubic foot: 원큐빅후웃(0.03 입방미터) \* 1 gallon(G/A): 원개런(3.785 리터)

4) 무게: \* 1 kg(킬로그램): 2.204 L/B(파운드) : 35.273 Ounces(아운스) \* 1 L/B(파운드): 454g (참고: 1근=600g)

5) 거리: \* 1 mile(마일)=지상에서 1.6km(M/L) \* 1 Nautical mile=해상에서 1.852km(N/M) 노리컬 마일

6) 이상은 간단한 개념에 불과하며, 이 밖에도 신발, 모자 등의 여러 관습적인 규격이 있으나 생략하고, “비즈니스 미국어”에서 대화로 전개할 예정이다.

포천사랑과 나의 이상

이 글은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에서 주최한 제5회 포천사랑 백일장대회에서 중학 포부 산문 장원 수상작품이다.(편집자주)



김수정 학생문예기자 (갈월중 2년)

“Hello, My friend Pocheon su jung? this is zhu” “Hi, zhu. how are you?” “I’m fine. I want to talk with you. Can you turn on the messenger now?” “Of course”

나는 부리나케 메신저에 들어갔다. 주는(Zhu) 2006 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으로 6박7일간 우리집에서 머물렀던 한 중국 친구이다. 엄마는 의사, 아버지는 교사인 주(Zhu) 역시도 나와 같은 외동딸이었는데, 어찌나 조순하고 잠도 없고 부지런한 성격인데다 포천과 우리나라에 관해 무엇이든지 궁금해했다. 그 덕에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간 주(Zhu)는 철이 다 든 속이 참 착 친구였다.

특히 주(Zhu)는 우리 학교 원어인 삼성남초를 밭을 좋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였다. 함께 머물렀던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일본인 여학생 레나는 중이어서 그런지 아직 어린 아이 같았다. 그간의 이야기들을 바쁘게 주고 받다가 자연스럽게 주는(Zhu) 잊을 수 없는 백운계곡 이야기를 꺼낸다. 함께 지냈던 날들이 한창 더울 때라 친구들과 엄마 차를 타고 포천의 명소인 백운계곡을 찾았다. 우리는 그저 아무 곳이나 좋기만 한 데 엄마는 더 맑은 물이 흐르는

들어왔다. “애들이 점심 먹자! 이제 좀 나오렴.” 히히, 이동갈비? 환상적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자리에 가보니 이미 갈비는 적당히 구어 지고 있었다. 또 나는 이동갈비 소개를 그럴싸하게 하고있는데 엄마께서 제일 맛있게 구어 졌을직한 한 점을 레나 입에, 그리고 주(Zhu) 입에..... 음 맞았다!!! Very delicious! Very great! Very Nice!... 주(Zhu)는 이 추억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은 꼭 포천을 가족과 함께 올 계획이며 그 때 다시 데리고 가 줄 수 있겠느냐며 별 생각 가대어 부푸는 듯 하다. 그리고 백운계곡의 물과 이동갈비의 맛이 일품이었는데 그때부터 내 이름 앞엔 꼭 포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얼마 전 포천신문에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 특별 인터뷰>에서 교육장님의 교육 지표인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미래 지향적인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역시 2006 국제 청소년 문화 체험 행사를 기본 목적과도 같은 책이다. 내게는 이미 함께 호흡했던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벨라루스, 몰도바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를 수 있는 곳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에 살고 있다.

티끌 듯한 희망을 가슴에 안고 미래의 꿈을 그리면서 나는 영원히 포천을 사랑하며 영원한 포천인으로써 역사에 남고 싶은 소망을 드리는 글을 하늘에 쓰아 올린다.